

## 카카오,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제…원격근무제 전면 시행

등록 2022.05.30 17:18:50

### 기사내용 요약

근무 장소 상관없이 가상 공간서 근무 7월 시작  
카카오 “‘연결’에 중점 둔 근무제 설계”  
음성으로 실시간 연결해 원격근무와 차별화

kakao

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카카오가 오는 7월 원격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가상 공간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새롭다.

카카오는 전 공동체(계열사)에 이 같은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메타버스 근무제를 통해 텍스트, 음성, 영상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동료와 협업할 수 있다. 카카오는 임직원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음성채널에 실시간으로 연결돼 소통하는 것이 기존 원격 근무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메타버스 근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룰’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근무제가 안착할 때까지 베타 운영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베타 운영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임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공동체 중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프렌즈, 카카오톡,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사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체별 적용시기와 방식은 각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다를 수 있다.

카카오 공동체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 이름을 부르는 호칭 문화 ▲신뢰·충돌·헌신의 의사결정 과정처럼 카카오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지난 2년간 원격근무를 경험해본 결과 업무를 하는 데 물리적 공간 보다는 ‘연결’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결론내렸다”며 “연결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근무제가 크루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돕고, 카카오 공동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원격근무를 시행해온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 산하에 ‘공동체 일하는 방식 2.0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어디서 일하는지 보다 어떻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메타버스 근무제 라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을 설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